

통도사 부산포교원 문화체험 통해 외국인 포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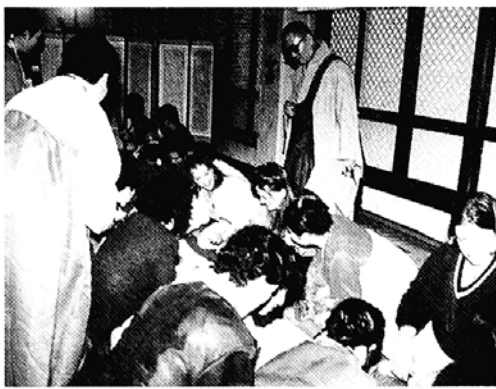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통도사 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회장 김건웅)는 지난해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문화강좌를 마련하고 우리문화속에 녹아있는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다. 강좌는 월별로 다양하게 준비돼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국제포교부는 내년부터 부산지역 각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2백여 근로자들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불심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신행 프로그램을 배가한다는 방침이다. 수련회, 성보박물관 및 사찰 탐사, 연꽃서식지순례 등의 프로그램도 새로 추가할 계획이다.

국제포교부는 올 한해동안 연등만들기, 탈춤, 시초창, 판소리, 다도, 연등만들기, 녹차만들기, 전래놀이 등을 실시했다. 강좌가 열리는 날이면 법당은 우리문화를 체험하려는 눈부신 외국인들로 붐볐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차를 마시고 탈춤의 흥겨움에 취하고 법회와 사찰문화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자가 된다. 처음에는 10여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는 1백여명에 이른다.

구미·포 근로자 1백명에 매월 문화강좌 다도·법회·연등제작등 불교정서에 매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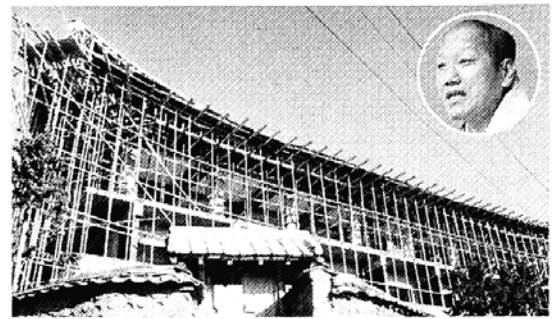


◇ 부산지역 외국인근로자들이 통도사 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에서 실시하는 문화강좌에 참석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며 불심을 다지고 있다.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려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국제포교부가 처음 발족했을 때만 해도 해외포교에 대한 자료나 운용 사례가 전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경전의 번역이나 불교 용어 번역의 어려움, 외국인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 부재 등 직접적인 불교전달의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나 15명의 국제포교부원은 외국어 강사, 유학생 등을 위주로 홍보를 시작해 성공한 불교전달보다는 문화를 매개로 하는 포교에 주력했다. 처음에는 미국, 영국인 위주였던 대상자들이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대되었고 직업도 강사, 교사, 학생, 근로자 등 다양해 졌다. 국제포교부는 앞으로 서울 등지의 해외포교 단체와 교류, 외국인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김건웅 회장은 "사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불교와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는 것이 포교의 첫걸음"이라며 "다른 해외 포교 단체와의 교류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외국인포교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해운정사 '시민선원'



◇ 부산 해운정사 시민들의 선수권을 위해 2백여명 수공규모의 지상 3층 시민선원봉사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내는 진제스님

시민 참선도량 내년 완공

낮은 휴담이 길을 따라 시종과 선원의 경계를 이루고 나무대문 하나가 담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고 있다. 선의 세계로 들어서는 상징처럼 그렇게 열려있는 문. 시골 정취 물씬 풍기는 이 공간은 바로 해운정사(조실 진제) 시민선원 불사의 모습이다.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 낮은 휴담 하나를 넘어 서서면 깊은 선의 세계를 만날 수 있게 조성되고 있는 시민선원. 이 시민선원은 진제스님이

5백평 2백명 수공규모 부처님 사리탑도 조성

평소 강조하는 생활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기도 해서 더욱 뜻이 깊다.

해운정사하면 곧바로 금모선원과 토요시민선방을 떠올릴 정도로 도심가운데 있는 선원의 기능을 북돋고 있다.

20년전부터 꾸준하게 맥을 이어 오고 있는 토요시민선방은 매년 찾는 불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간의 부족없이 모든 시민선객들을 수용, 지도하고자 발원된 시민선원 불사는 지상 3층 건물의 선방과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1층은

5백여명의 공양이 가능한 대중공양간, 2층은 개인공부방과 숙소로 활용될 14개의 방, 3층은 80평 규모의 선방으로 꾸며진다. 해운정사 시민선원 불사가 완료되면 1백50명~2백여명의 시민들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생활속에서 선의 향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총 건평 5백평에 가까운 이 불사는 올초부터 시작돼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초파일 이전에는 모든 불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불사가 마무리되면 현재 스님의 공양방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토요시민선방의 공부처뿐 아니라 청소년 수련, 선방스님들의 수행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게 된다. 현재 시민선원 불사의 에도 1천평에 달하는 주차장 불사가 진행중이고 목조 3층 사리탑을 조성해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는 불사도 계획하고 있다.

진제스님은 "지금이 어려운 시절에는 생활중에 참선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생활인들이 쉽게 찾아와 참선하고 지혜를 닦아 생활선을 실천하도록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생활선을 또 한번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장흥 탐진담 수물 예정지 매장문화재등 보존해야

전남 장흥 탐진담 건설로 인한 수물지구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유형문화재 매장문화재 전문건축물 등 유적이 산재해 있어 종합 학술 조사와 전사건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대 박물관은 11월 26일 지난해 11월부터 1년동안 수물 예정지역에 분포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와 문화유적을 정리한 <탐진담 수물지역내 문화유적>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특히 수물지에 가까운 보림사가 탐진담 건설로 인한 습기과해가 예상돼 전문가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보림사는 국내 단위사찰로는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곳으로 국보 2점과 보물 8점

등이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참여 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문화유적 전사공원과 종합자료 전사건 건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경주 실업대책본부 개소

실직가정에 무료급식...진료·법률상담도

경주에 실업대책본부가 개소된다. 경주 실업대책본부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성태스님)는 8일 YMCA에서 대표자 회의를 갖고 실업자 구제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세부 사업을 수립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동천동 구 경주신문사 사옥(50평)에 사무실을 마련, 이날중에 발대식을 개최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발대식에 앞서 12월말까지 각 단체별로 실직가정에 쌀과 김장김치 등을 지원하고 무료진료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실직가정 무료진료는 경주지역 의사·약사·한의사 협의회와 연계해 실직가정에 무료진료카드를 발급, 진료및 치료를 하게 된다. 이밖에도 추진위원회는 실직가정 자녀 무료급식(놀이방 도서관)

운영, 고용안전센터와 연계 구직 및 생계지원, 무료급식활동을 비롯 소비자 노동 여성 법률 교육 등의 상담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추진위원회는 11월 26일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실직자강습기안찬회 초청공연 및 바자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사회연구원, 경주 경실련, 상건선당 등 10여 종교·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주 실업대책본부 추진위원회는 16일 대표자 및 담당자 회의를 갖고 발대식 일정 및 사업방향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98 불국토의 밤 행사

석한 불국토의 밤에서는 불국토 산하법인인 개금·두송·물운대사회복지관, 양정청년회관 등의 사업과 함께 제6회 보리방송문화제와 자랑스런 불자상 시상식을 가졌다. (사진)

이사장 정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국토의 이념을 사회로 널리 퍼는데 동참해 주신 후원자와 봉사자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불국토 이념 실현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양정청년회관 1억5천만원에 비웃 대한불교어린이지도회 1천만원, 고등학생불교연합회, 중학생불교연합회 등에 포교기금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청소년 산사문화교실 연다

부산신도회 1월10-13일 묵언·선체조등 다채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가 청소년 산사문화체험 교실을 실시한다.

부산불교신도회가 마련한 제1회 불교청소년 산사 문화체험교실은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일대 사찰 및 극단, 가마 등의 문화공간에서 진행된다. 사찰과 문화공간의 활용을 통해 우리문화와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문화체험교실



법사종 단양에 연수원 기공

법사종 총무원(원장 성순경)은 5일 법사종 단양 불교연수원 기공식을 가졌다. 연수원 건립 기공식은 총무원 기획실장 조현수 법사가 총무원 단양군 영춘면 사리원리 일대 2만여평을 기증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총무원은 불교연수원을 건립 6천여평의 규모로 건립하고, 연수원 용도 시설외에도 12평 원돌 247세대를 지어 상가로 분양해 수익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psd@buddhapia.com)

제주 어린이지도자 연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제주지부(회장 인성)는 31일부터 98년 1월 2일까지 평화통일불사리 탐사에서 제5회 제주불교어린이지도자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김중근 기자

동원 어린이회 사찰순례

제주 죽림정사(주지 인성) 동원 어린이회는 98년 1월15일부터 17일까지 제2회 사찰순례를 실시한다. 이번 사찰순례는 순천 송광사, 하동 쌍계사,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 등 전남도 지역 10여 사찰, 어린이들은 사찰을 순례하며 조석예불, 법문, 108배 등의 수련회와 가람의 배치 등 불교문화에 대한 현장학습을 실시하게 된다. 인성스님은 "제주지역에는 큰 사찰이 없어 어린이불자들이 불교건축 및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사찰순례를 실시하게 됐다"며 "사찰순례에 동참한 어린이들이 불자로서의 자긍심이 돈독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동원어린이회와 사찰순례는 98년 해안선 등 경남도지역을 시작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김중근 기자

탈 종 공 고

한국불교대교종 총무원장 귀하

■ 사찰명 : 수 향 사

■ 주 소 :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 주 지 : 김 벽 해

본인은 귀종단의 종풍과 종지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에 탈종을 권고합니다.

1998. 12.

뜻대로 사는 길 아·박·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책임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바타를 경험하세요!

- 아바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바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바타 코스는 종교색이없고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바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침구하는데 눈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해 한다.

"아바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깨달음을 이루어 가는 힘을 넣어준다."

아바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옵니다. 아바타의 이름으로..

- 아바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바타센터에서는 매일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바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시요.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바타 센터 0523)381-114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011)882-1149

건강에의 신비! 옥

원川 玉山家玉

玉

태고에서 무덤까지 옥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들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권위를 기른 결과 솟는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의 나머지는 37%~84.8%의 치료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와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 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질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에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여야 승패가 걸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옥옥)

순수한 평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 공개.

◎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몸이아이다사 그림, 佛자그림 (수액피 치단) 특별보!

특 전

전수종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목가협회 초대 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액피 방지 충전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담당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 (02)242-0331, 242-0255 (야) 216-0307, 011-471-1996

●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정준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